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8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2.

발 의 자 : 신동욱 · 박준태 · 김 건  
조배숙 · 김소희 · 서천호  
엄태영 · 나경원 · 유용원  
배준영 · 인요한 · 구자근  
이만희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됨.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의 조작·훼손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여 개표의 투명성·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,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임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투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 조항을 참조하여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행정편의상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음.

그러나 인쇄 날인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며 개표절차에

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음.

이에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(안 제151조제4항 등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1조제4항 후단 중 “갈음할 수 있다”를 “갈음할 수 없다”로 한다.

제15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 ① ~ ③ (생략) ④投票用紙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의 廳印을捺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廳印의捺印은 印刷捺印으로 <u>갈음할 수 있다.</u> ⑤ ~ ⑨ (생략)	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갈음할 수 없다.</u> ⑤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58조(사전투표) ①·② (생략)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“사전투표관리관”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 <후단 신설>	제158조(사전투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.</u>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④ ~ ⑧ (생략)	